

#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 협의회 실시

### ‘지세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대책 위해 마련 이정선 교육감·지세움 운영교사 등 20여 명 참석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 기관인 ‘지세움’에서 ‘20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 협의회’를 실시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들과 담당 부서 과장, 지세움 운영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세움’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소한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및 맞춤형 지원기관이다. ‘지지하기·세워주기·마음의 힘이 윗트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

한다. 개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학생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논의에 앞서 ‘지세움’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봤다. 학생들이 지내는 숙소,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아이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고루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지세움에 참여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사례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 운영 ▲친구와 함께했던 우정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부모가 겪은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두가 고심하는 자리가 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광주교육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안 발생 시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온전한 회복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위드 프렌즈 ▲어울림



등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학교 폭력 예방에 힘쓴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지세움 및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피해학

생 및 학부모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인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김재환기자

## 보성도서관, 드로잉 매직쇼 ‘얼라이브쇼’ 성료



보성도서관은 지난 4일 새학기를 맞이하여 드로잉 매직쇼 ‘얼라이브쇼’공연을 어린이 및 지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얼라이브쇼’는 신청기간 3일만에 마감

되어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으며, 당일엔 현장접수로 관람 하는 가족도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얼라이브쇼’는 미술과 미술이 결합한 공연으로 시작부터 대형 깃발과 꽃가루를 이용하여 미술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그 후에는 거꾸로 그림을 그려 찰리 채플린을 완성하였고, 대중 그린 선들이 앤디 워홀의 마틸린 먼로가 되고, 랜턴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성=김덕순기자

## 고흥평생교육관, ‘2023 초·중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과정’ 입학식



고흥평생교육관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교육관에서 신입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초·중·중학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 동안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예정

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고흥평생교육관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과정은 2일 중학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3일 초등 교육과정까지 양일간 학습자들의 입학 축하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 동안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초등·중학 교육과정 신입생은 일정기간 동안 각 교육과정 1~3단계를 이수하고, 전라남도교육감의 학력인정 결정에 따른 학력인

정서와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기관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다.

고흥평생교육관 변윤섭 관장은 “지난 날 가슴으로 품고 계셨던 아쉬움과 한을 떨쳐내실 수 있도록 교육관이 여러분의 배움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 모두 영광스런 졸업장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채본부

## 함평 신광초등학교, 작은학교 입학식 개최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관내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신광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 신광초등학교는 2023학년도에 초등학생 1명, 유치원 원아 1명이 입학했다.

범미경 교육장은 격려사 서두에 “입학(원)을 축하하는 마음이 우선이지만, 동급생 친구가 없이 입학하게 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하며 최근 농촌 면 단위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더불어 입학생에게는 학용품 꾸러미를, 전교생과 직원에게는 환경실천 텀블러를 증정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학부모, 교직원과 공감·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함평=김평춘기자

## 곡성교육문화회관, 2023년 북큐레이션 ‘생태책방 책뜰’ 운영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마련

곡성교육문화회관은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환경 북큐레이션 ‘생태책방 책뜰’을 지난 2일부터 연중 운영한다.

북큐레이션이란 도서를 뜻하는 북(Book)과 추천을 뜻하는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주제에 맞게 사서가 선정한 도서를 전시, 제공하여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뜻한다.

올해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곡성교육문화회관은 생태환경을 특화주제로 선정하여 매달 새로운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민에게 생태환경에 이해를 높이고, 기후 위기,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의 주제는 ‘꽃 피는 봄, 설레는 봄’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탄성이 시작되는 봄에 관한 도서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태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생태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북큐레이션 도서 전시는 종합자료실 내 ‘생태책방 책뜰’ 코너에서 진행되며 전시 도서는



모두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컬러링, 만들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